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具 滋 明

바디아트의 질감표현에 관한 연구

A Study of Methodology to Express Touch
in Materials Used in Body Art

2005年 12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林 正 未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具 滋 明

바디아트의 질감표현에 관한 연구

A Study of Methodology to Express Touch
in Materials Used in Body Art

이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5年 12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林 正 未

林正未의 藝術學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5年 12月

審査委員長 林 正未 

審査委員 金 孝 貞 

審査委員 于 子 昭 

국 문 초 록

문화의 발달과 더불어 현대에 있어 바디아트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패션쇼, 연극, 퍼포먼스 등에 볼 수 있었던 바디아트는 색과 형태 위주의 작품 표현이 많이 이루어져 있어 표현적인 특성이 강한 질감 표현에 대한 작품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바디아트에 있어서 질감표현은 온 몸의 피부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각되고 기억되는 촉각적 질감과 우리의 대뇌에 기억되고 저장되는 시각적 질감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아티스트가 만들어 내는 새로운 질감의 근원은 자연의 질감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바디아트의 질감은 매우 중요하며 작품의 이미지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용하는 재료와 도구에 따라 질감의 효과가 다양하며 이것은 여러 가지 느낌을 달리하고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질감을 신체에 적용해 봄으로써 시각표현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응용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모색하고, 질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에 바디아트의 예술성을 높이고 앞으로 바디아트분야 작품 활동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작품제작은 시각적인 질감과 촉각적인 질감을 고려하여 회화적 표현기법, 그래픽적 표현기법, UV발광물감을 이용한 표현기법, 에어브러쉬를 이용한 표현기법, 오브제를 활용한 바디아트 표현 기법을 응용하여 아쿠아 컬러크림, 머드팩, 석고팩, 은박, 금박 등의 재료를 활용하여 작품제작을 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바디아트에 표현된 질감은 화폭에서처럼 붓으로 그리는 회화적 기법

이나 에어브러쉬를 이용하여 실제로 만져지지 않는지만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물을 실물과 똑같은 모습을 묘사하여 시각적 질감을 표현하였다. 촉각적 질감은 촉각에 의해 대상을 파악하는 질감으로 머드팩, 석고팩, 은박, 금박, 글리터스 등의 재료들을 사용하여 까치까칠한, 미끈미끈한, 딱딱한, 건조한, 매트한, 갈라지는, 뻑뻑한, 두꺼운, 화려한, 글리터스한, 거친, 부드러운 등으로 표현하였다.

둘째, 시각적 질감과 촉각적 질감을 응용한 바디아트 작품제작에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입체적 표현과 질감의 특성들을 보여줌으로써 바디아트의 표현양식에 있어서 질감이 적용되고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질감의 특성을 모티브로 삼은 바디아트는 묘사위주의 표현에 치중되는 것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하고 예술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목 차

국 문 초 록	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II. 바디아트와 질감표현에 관한 고찰	4
1. 바디아트에 관한 고찰	4
1) 바디아트의 개념	4
2) 바디아트의 유형과 목적	5
3) 바디아트의 표현기법	25
2. 질감표현에 관한 고찰	34
1) 질감의 개념과 특성	34
2) 질감의 분류	36
3. 바디아트에 표현된 질감사례	42
1) 시각적 질감의 바디아트	42
2) 촉각적 질감의 바디아트	43
III. 작품제작 및 해설	48
1. 작품제작 의도 및 방법	48
2. 작품 및 해설	49
IV. 결 론	68
참고문헌	70
ABSTRACT	73

사 진 목 차

〈사진 1〉 페이스페인팅	14
〈사진 2〉 페이스페인팅	14
〈사진 3〉 바디페인팅	14
〈사진 4〉 바디페인팅	14
〈사진 5〉 영구 문신	15
〈사진 6〉 영구 문신	15
〈사진 7〉 영구 문신	15
〈사진 8〉 영구 문신	15
〈사진 9〉 일시적 문신	16
〈사진 10〉 일시적 문신	16
〈사진 11〉 일시적 문신	16
〈사진 12〉 크리스탈 문신	16
〈사진 13〉 헤나염색	17
〈사진 14〉 헤나염색	17
〈사진 15〉 상흔	17
〈사진 16〉 상흔	17
〈사진 17〉 피어싱	18
〈사진 18〉 피어싱	18
〈사진 19〉 피어싱	18
〈사진 20〉 피어싱	18
〈사진 21〉 회화적 기법	29
〈사진 22〉 회화적 기법	29
〈사진 23〉 회화적 기법	29
〈사진 24〉 회화적 기법	29
〈사진 25〉 그래픽적 기법	30

〈사진 26〉 그래픽적 기법	30
〈사진 27〉 그래픽적 기법	30
〈사진 28〉 UV발광 물감을 이용한 표현기법	30
〈사진 29〉 UV발광 물감을 이용한 표현기법	31
〈사진 30〉 UV발광 물감을 이용한 표현기법	31
〈사진 31〉 UV발광 물감을 이용한 표현기법	31
〈사진 32〉 에어브러쉬 기법	31
〈사진 33〉 에어브러쉬 기법	32
〈사진 34〉 에어브러쉬 기법	32
〈사진 35〉 오브제를 활용한 표현기법	32
〈사진 36〉 오브제를 활용한 표현기법	32
〈사진 37〉 시각적 질감	41
〈사진 38〉 시각적 질감	41
〈사진 39〉 촉각적 질감	41
〈사진 40〉 촉각적 질감	41
〈사진 41〉 시각적인 질감	45
〈사진 42〉 시각적인 질감	45
〈사진 43〉 시각적인 질감	45
〈사진 44〉 시각적인 질감	45
〈사진 45〉 시각적인 질감 및 촉각적인 질감	46
〈사진 46〉 시각적인 질감 및 촉각적인 질감	46
〈사진 47〉 시각적인 질감 및 촉각적인 질감	46
〈사진 48〉 촉각적인 질감	46
〈사진 49〉 촉각적인 질감	47
〈사진 50〉 촉각적인 질감	47
〈사진 51〉 촉각적인 질감	47
〈사진 52〉 촉각적인 질감	47

작 품 목 차

〈작품 1〉	50
〈작품 2〉	52
〈작품 3〉	54
〈작품 4〉	56
〈작품 5〉	58
〈작품 6〉	60
〈작품 7〉	62
〈작품 8〉	64
〈작품 9〉	66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인류는 선사시대부터 신체에 색을 칠함으로써 창조적 충동을 표현하고자 장식하고 변화를 추구하였다. 그것이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더 세련되어졌을 뿐 아니라 그 시대의 예술적 표현물로서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 산재되어 남아있다. 이것은 미적 본능 중 하나로 신체보호, 종교적 의식, 다른 부족과의 구별, 사회적 지위 등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현대에 와서 신체에 대한 금기가 사라지고 우리 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새로워진 배경 위에 신체를 다루는 미술이 부각되는 것은 다양한 일로 여겨지며 현대에 와서 신체를 매체로 한 예술적 표현은 흔한 일이 되었다. 인간의 미적추구와 끊임없는 본능에서 자기표현의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으며, 발달되어진 재료만큼이나 그 기법에 있어서도 회화적 기법, 사실적 묘사 외에 빛의 음영처리로 부각시키는 기법, 사진 기법을 이용한 기법 등으로 원시시대의 신체예술과는 달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체를 예술의 재료로 삼는 바디아트는 인간의 신체를 새롭게 만드는 헤어드레싱, 패션 등을 포함한 말이며, 그것은 장식품과 페인팅, 염색 또는 문신, 상흔, 제거, 변형 등을 통한 일시적 혹은 영구적 신체표현의 방법으로 조형예술의 한 분야로 설명될 수 있으며 현재는 신체장식, 신체예술 등의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 신체의 미적 표현 수단에서 정신의 상징적 표현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를 넓혀 새롭게 인정받고 있다.

특히 얼굴과 몸에 채색하는 페인팅은 때때로 조명과 음악과 의상 또는 소도

구와의 조화와 함께 주제에 맞는 표현을 위한 퍼포먼스를 포함하는 예술적 차원으로 태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단순한 치장이 아닌 새로운 문화예술의 한 영역으로써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바디아트의 주요한 표현 수단이 되는 구성요소는 선, 색, 형태와 질감이 있다. 그중에서 질감은 우리가 걸끄러운 종이나 형질 같은 화면의 재질의 표면적인 구조를 눈이나 손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을 뜻한다. 이러한 질감은 시각적 쾌감을 주며 생명력있는 표현성을 지녔기에 창조적 시각표현을 위한 가능성을 부여하며, 감각적 설득력을 지니므로 이미지 전달에 추진력을 주는 에너지로써 화면을 풍부하게 하고 공간감을 부여 한다는 점에서 조형요소에서 중요하게 취급된다.

바디아트에서도 질감은 매우 중요하며 작품의 이미지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인체에 페인팅을 하는데 붓으로 할 때와 스폰지로 할 때 느낌은 달라진다. 바디아트에서도 이러한 질감을 표현함으로써 독특한 이미지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바디아트는 색과 형태 위주의 작품 표현이 많이 이루어져 있어 다른 조형요소 특히 형태보다 더 표현적인 특성이 강한 질감 표현에 대한 작품 활동이 필요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질감의 특성을 이해하여 질감을 신체에 적용해 봄으로써 시각표현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응용될 수 있는지 하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질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바디아트의 예술성을 높이고, 앞으로 바디아트분야 작품 활동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시각적인 질감과 촉각적인 질감을 신체에 접목시키고 바디아트에 있어 다양한 질감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바디아트의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다.

첫째, 바디아트에 관련된 문헌을 중심으로 바디아트의 개념을 이해하고 바디아트의 유형과 목적을 고찰하고 표현기법들을 알아본다.

둘째, 질감표현에 관한 고찰을 통해 질감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 질감을 조형적으로 분류하고 바디아트에 표현된 질감사례를 제시한다.

셋째, 회화적 표현기법, 그래픽적 표현기법, UV발광물감을 이용한 표현기법, 에어브러쉬를 이용한 표현기법, 오브제를 활용한 바디아트 표현 기법을 응용하여 아쿠아 컬러크림, 머드팩, 석고팩, 은박, 금박, 글리터스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질감을 위주의 작품을 제작한다.

II. 바디아트와 질감표현에 관한 고찰

1. 바디아트에 관한 고찰

1) 바디아트의 개념

바디아트의 개념을 바디(body)와 아트(art)의 개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바디는 신체(身體)또는 인체(人體)라는 의미로 여기서 신체는 한자어로 몸신(身) 몸체(體)로 해석되며, 인체는 사람인(人) 몸체(體)로 해석되어 엄밀히 정의하면 신체는 동물의 몸까지 확대해석이 가능하나 인체는 사람의 몸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아트(art)는 예술이란 의미로 예술은 “어떤 일정한 재료와 양식, 기교 등에 의해서 미를 창조하고, 표현하는 인간의 활동 또는 그 산물”을 지칭한다(이기문 감수, 2005 : 1686). 따라서 바디아트는 신체 예술로써 인간의 신체에 어떤 일정한 재료와 양식, 기교 등에 의해서 미를 창조하고 표현하는 인간의 활동 또는 산물이라 할 수 있다.

Encarta 세계영어사전(2001)에서는 바디아트를 인간의 신체를 새롭게 만드는 것 (헤어드레싱, 패션 등)들을 포함한 말이며, 그것은 장식품과 장식품을 달기 위한 피어싱, 영구적인 문신, 상처나 또는 일시적으로 행해지는 페인팅이나 염색을 의미한다고 되어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장식방법과 도구를 이용하여 인간의 신체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장식하는 예술을 바디아트라 할 수 있으며, 신체장식, 신체예술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패션, 헤어스타일, 머리장식, 보석이나 장신구를 통한 장식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는 신체장식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상흔, 피어싱, 문신, 페인팅, 염색 등 주로 인체의 피부를 통한 장식과 신체 일부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는 변형과 제거 등을 일컫는 말로는 바디아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바디아트는 인체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장식과 변형하는 것으로 페인팅, 문신, 상흔, 염색, 변형 및 제거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바디아트는 인간의 몸이 예술의 행위자인 동시에 표현의 재료로써 나타나는 예술형태로 인간의 신체에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의식화된 행위이자 표현의 양식이고 예술과 인간을 조화시킴으로서 새롭게 창조되는 독창적 예술이다.

2) 바디아트의 유형과 목적

(1) 바디아트의 유형

인간이 제 1차적 욕구 본능인 식욕과 성욕을 충족하게 되면 심리적인 자기 만족을 위해 자신의 신체를 아름답고 매력있게 장식하고자 한다. 고대로부터 인류는 엄청난 신체적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체를 장식하였고 기계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 사회에서도 신체에 대한 본능적 욕구가 계속 존재하여 메이크업이나 귀뚫기, 눈썹이나 다리의 털 깎기 심지어는 성형 수술까지 한다. 이렇게 인류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어떤 방법이든 자신의 신체를 장식하였는데, 그 방법은 기후조건이나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원,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등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바디아트의 유형에는 페인팅, 문신, 헤나 염색, 상흔, 제거, 변형 등이 있다. 그 형태로는 일시적인 것과 영구적인 것으로 분류하거나 구별한다. 일시적인 형태는 페인팅, 헤나 염색, 일회용 문신이 있고, 영구적인 형태는 문신, 상흔, 제거,

변형 등 형체 변형을 들 수 있다.

① 페인팅

동굴의 벽화 등을 통해 원시인들이 신체에 채색을 행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세아니아에서는 가까운 친척이 죽으면 애도의 표시로 얼굴, 머리, 심지어 몸 전체를 백토로 덮는 것이 흔한 풍습이다. 이는 죽은 이의 영혼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채색을 하는데 산자에 대한 망자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널리 믿어지고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진흙이 상처를 치료하는데 빠른 효과가 있어 마술적이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진흙은 소년의 성년 의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진흙은 성인식 동안 소년은 죽고 성숙한 어른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필요하다고 믿는다(한명숙, 2005 : 72).

인간의 몸에 색칠을 하는 채색에는 페이스 페인팅(face painting), 바디 페인팅(body painting)이 있다. 페인팅은 메이크업(make-up), 토일렛(toilet), 드레싱(dressing) 또는 프랑스어로 마꾸아쥬(maquillage) 등으로 표현하며 현재 우리가 보통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화장을 뜻한다. 16세기 셰익스피어의 희곡 속에 페인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백남분에 색상과 향료를 섞은 것을 얼굴에 화장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16세기의 이탈리아에서 전래된 짙은 화장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16~17세기를 통하는 연백을 원료로 만든 분을 페인트라 불렀고 그 후에 백남분에 색상과 향료를 섞어 만든 다채로운 안료로 얼굴에 색칠하는 것을 페인팅이라 하였다(김광숙 외 3인, 2001 : 11). 메이크업은 신체 특히 얼굴을 중심으로 색과 향을 부여하고 잘 조화시켜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미적가치를 추구하는 행위 자체를 말한다.

메이크업에는 일상적으로 하는 뷰티 메이크업과 창작성과 예술성이 돋보이는 아트 메이크업이 있다.

바디페인팅은 물감이나 진흙, 그 외에도 신체에 표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용하여 아름답게 환상적으로 혹은 의도된 목적에 따라 채색하는 장식 방법이다(문정은, 2003 : 13~14).

바디페인팅은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인간의 몸을 이미지화시켜 재구성하는 것으로 신체의 구조이해, 디자인 감각, 색채 등 다자인의 기초지식을 알아야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바디페인팅은 정지된 상태로 자유로이 감상 할 수 있는 작품과는 달리 일회적이고 보존되지 않는 단점을 지니고 있지만 정지되어 있는 예술품보다 생동하는 다차원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실적 작품에서 실험적 작품들에게까지 다양한 변화가 가능하다. 사람의 인체를 소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지만 신체 일부 혹은 몸 전체에 특정 행위나 이미지를 전달하고 극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메시지가 강한 주제를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문양, 추상적 화법, 사실적 묘사, 빛의 음영처리로 부각시키는 기법, 사진기법을 이용한 연출 등의 여러 가지 기법과 독특한 연출을 할 수 있어 다른 문화 예술과 접목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단순히 정적인 작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체를 활용한 동적인 공연문화 예술, 즉 메이크업과 물론 의상, 소품, 무대연출, 조명, 안무, 음향이 하나로 이루어져 인체의 움직임과 그에 따른 특수 효과 등으로 신비롭고 환타스틱한 무대공연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페인팅은 신체 일부 혹은 몸 전체에 인물의 특정 행위나 이미지를 전달하고 극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메시지가 강한 주제를 표현할 수 있는 종합예술로 아티스트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예술분야라 할 수 있다.

② 문신

문신이란 피부의 피하 조직에 상처를 내고 물감을 들여 글씨나 그림, 무늬 등을 새기는 것을 뜻하며 먹을 사용한다고 해서 입묵(入墨)이라 불렀고, 글자나 문양을 새겨 넣는다고 자자(刺字)또는 자문(刺文)이라고 하였다. 문신은 일반적으로 미개민족이 성년식을 행할 때 어른이 되었다는 상징으로 씨족이나 부족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표시에 해당하며, 주술적이며 종교적인 의례이기도 하고 장식으로서 미학적인 의미도 지닌다. 그 밖에 계급을 나타내는 것과 액땀을 위한 것이나 결혼이나 출산 때 호적대신 행하는 경우도 있다(한국미용학회 편, 2003 : 330~331). 현대에는 미용문신이라 하며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에 영구문신을 하기도 하며, 젊은이들은 개성 있는 몸 장식을 위해 또 일부 집단에서는 결속의 징표로 문신을 한다. 이때는 주로 가슴이나 팔뚝에 호랑이가 표호하고 독수리가 내려 앉은 모습, 담뱃대와 뱀, 승천하는 용 등의 주로 용맹스럽고 거친 이미지의 문양으로 혈맹과도 같은 관계임으로 서로에게 다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신을 뜻하는 라틴어는 스티그마(stigma)인데, 현대 사전에도 그 본래 의미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웹스터 사전에는 ‘stigma’가 ‘뾰족한 기구로 찌름’(스티브 길버트, 이순호 역, 2004 : 19)으로 나타나 있다.

영어로 ‘tattoo’ 독일어로 ‘tatowirungz’ 불어로 ‘tatouage’ 그리고 스페인어로 ‘tatuaje’ 이탈리아어로 ‘tatuaggio’이며 철자법만 약간씩 다를 뿐 모든 유럽의 언어에 존재해 왔다. 문신이라는 단어는 남태평양을 여행하고 돌아 온 영국의 쿠크함장에 의해 처음 영어로 소개되었는데 타히티 말의 치다라는 뜻의 ‘tatu’가 문신의 어원이라고 할 수 있다. ‘tatu’는 날카롭고 뾰족한 도구를 얼굴에 대고 작은 방망이를 이용하여 그 도구를 때리는 기술을 뜻한다. 문신을 하는 기구는 사람 또는 새의 뼈로 만들었고, 때로는

가시나 다듬은 나무로 만들었다. 뾰족한 것을 피부에 대고, 작은 방망이로 쳤었다(빅토리아 에빈, 임숙자 역, 1988 : 83)

문신하는 방법으로는 손으로 직접 붓 같은 것을 가지고 무늬를 그리던지, 아니면 무늬를 새긴 목제 스탬프를 눌러 찍어 피부에 의도적으로 특정한 형태의 그림, 글씨, 무늬를 그리고 동물의 뼈와 같은 뾰족한 도구로 피부를 콕 콕 찔러 상처를 내고 그 안에 먹을 집어넣는 것이다. 또한 칼로 먼저 피부를 절개한 후 먹을 넣는 방법과 피부에 먼저 먹을 칠하고 바늘로 찌르는 방법 등이 있다.

오늘날에는 일시적인 문신법이 개발되어져 우리의 신체를 장식하는 데 부담이 없어졌다. 바늘과 물감 대신 타투 쥬, 크리스탈 타투 등과 같은 일회용 판박이가 사용되고, 원할 때마다 다른 무늬로 간단히 바꿀 수 있다. 이런 속성의 변화로 일반인의 접근이 보다 더 용이해졌다. 특히 크리스탈 타투는 원시민족이 행하던 문신의 느낌과 매우 비슷하며 입체적인 표현이 가능하고 화려한 느낌으로 신세대 여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러한 일회용 문신을 사용하여 쉽게 다양한 문양을 신체에 장식함으로써 자신만의 개성을 부각시킬 수 있게 되었다.

③ 헤나 염색

헤나는 라소니아 이너미스(*Lawsonia inermis*)라는 식물학상의 이름을 가진 식물의 잎 속의 탄닌산이라는 자연 염색 속성을 지닌 헤나 가루를 이용하는 것으로 일종의 염색이다. 인도 라자스탄 지방의 헤나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헤나를 인도 문신이라고도 불린다.

아프리카의 대서양 연안에서부터 말레이시아까지의 많은 국가들이 헤나를 사용하면서 그것의 명칭 또한 다양한 것으로 전해지며 주로 아랍어로 ‘헤

나', 인도어로 '맨디'라 불려진다. 헤나는 종교적인 행사나,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의 장식으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북아프리카, 터키, 인도 등의 많은 나라에서는 여성들이 남성의 시선을 끌기 위하여 몸을 꾸미거나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하여 염색을 하고, 때로는 일부에서 악마와 질병을 쫓아내는 신비스러운 것으로 사용되었다. 헤나 문신은 고통이 없고 주재료가 자연에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체에 큰 해를 끼치지 않으며, 2주정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때문에 영구적인 신체 장식에 거부감이 있는 이들에게도 각광받고 있다.

④ 상흔

상흔(scarring)이란 피부에 상처를 내어 남은 흉터로 신체를 장식하는 것으로 문신이나 채색과 같이 색채를 이용하기 어려운 피부색이 짙은 종족에게서 많이 사용되었다(현대인과 패션 편찬위원회, 1998 : 12). 면도칼이나 송곳 등 예리한 도구를 이용하여 피부에 원하는 모양의 상처를 낸 뒤 그 상처가 아물면서 생기는 흔적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때 피부를 베어낸 뒤 상처가 아플 때 까지 그대로 두면 우묵한 직선의 흉터가 생기는데 이를 반흔이라 하며, 피부 깊숙이 상처를 낸 뒤 상처의 부위를 솟이나 재, 모래 등으로 문질러 흉터가 부풀어 오르게 하여 만든 것은 켈로이드 증상의 상흔으로 반흔에 비해 보다 널리 알려져 있는 방법이다(문정은, 20003 : 11).

상흔은 아프리카에서는 수단인이 사용하며, 중부 아메리카에서는 콜럼버스 이전의 퀘바족 사이에 성행했으며 멜라네시아¹⁾에서는 산타크루즈²⁾섬에서만 행해졌다. 이 섬사람들은 얼굴과 가슴, 등에 까지 상흔을 했다. 그리고 보다

1) 오세아니아(대양주)의 일부로 오스트레일리아 북동쪽 남태평양의 약 180° 경선에 연이어 있는 섬. 그리스어로 '검은 섬들'이라는 뜻이다.

2) 남서 태평양 뉴헤브리디스 제도 북쪽에 산재하는 화산도군(火山島群).

널리 보급되어진 것은 켈로이드 증상의 상흔이다. 이는 부조(浮彫)가 된 큰 상흔으로 서아프리카 지역의 반투족이나 나일강 유역의 주민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으며, 여성들이 주로 이용한다. 아메리카에서는 고대 마야인에게서 볼 수 있고, 중미의 수모족이나 부리부리족은 지금도 행하고 있는데, 상처 구멍을 불에 태운 후 일종의 송진으로 덮어 바른다. 누바족 여성은 가슴, 등, 배에 좌우대칭의 기하학적무늬도 피부를 손가락으로 잡고 벤 다음 숯, 재, 모래 등으로 문질러 흉터가 부풀어 오르게 하여 만들었다. 이러한 상흔은 여성의 성적인 매력을 높인다고 생각하였으며, 주로 사춘기 초기에 만들거나 아이의 검은 피부에 상흔을 덧붙여 만들었다. 누바족의 남성 역시 남성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상흔을 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서부와 북부에 사는 토인들도 켈로이드증상의 상흔을 하고 있다. 남부 멜라네시아의 뉴헤브리디스 제도에서는 별모양의 장식적 상흔을 즐겨 만들었고, 폴리네시아에서는 오직 피지 제도의 여성들이 상흔을 만든다. 동인도네시아에서는 바바르섬이나 티모르 라우트의 무나족이 불에 태워서 만드는 상흔의 풍습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피부색이 짙은 종족에게 주로 상흔 문신이 쓰이는 이유는 검은 피부에 색소를 사용하여 문신을 했을 때 눈에 잘 띄는 색깔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색을 써서 나타내기보다는 피부에 입체감을 형성시켜 눈에 잘 띄게 하고 그들 나름의 미를 표현하였다(한명숙, 2005 : 70). 이처럼 상처가 부풀어 오르게 함으로써 입체적인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는 신체상에 큰 고통과 함께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상흔은 현대의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과는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⑤ 변형 및 제거

어떤 소속집단은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며 아름다움

의 정의라고 생각되는 미적 가치 기준에 따라 소속집단으로부터 이탈되지 않기 위하여 신체모양을 만들고 수정하여 신체의 형태를 급격히 변화시킨다.

변형은 신체의 형태를 변화시켜 장식한 것으로 원시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여전히 아프리카 등지에 남아 있는 기이한 패션들 즉 코를 꿰는 것, 귀를 쳐지게 늘리는 것, 아랫입술을 둥근 진흙 원반을 넣어 기형적으로 늘이는 것 또는 고리를 끼워 목을 늘이는 것, 마스크나 특수 볼드 캡을 활용해 인체를 과장하거나 왜곡시켜 표현하는 방법과 전족, 코르셋 등에서 나타난다. 제거란 입술, 볼, 코, 귀 등에 구멍을 뚫거나 또는 손마디, 치아 등 신체의 일부를 제거함으로써 장식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이러한 장식은 성년식과 관련을 가지고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현대인과 패션 편찬위원회, 1998 : 13). 원시인들은 귀나 코를 뚫어 조개껍질, 동물의 뼈, 깃털, 쇠붙이 등을 넣어 왔으며, 계속해서 지금까지 귀·코·입술·눈썹·드리고·혀 등 얼굴의 모든 곳과 배꼽·유두·성기까지 신체의 여러 곳에 구멍을 뚫거나 보석장식을 하였다(문정은, 2003 : 16). 의료용 스테인리스나 플라스틱 장식을 하기도 하는데 이를 피어싱이라 한다. 피어싱(piercing)이란 몸의 일부에 구멍을 내어 그곳에 각종 장신구로 치장하는 표현방법으로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왔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피어싱의 이름과 기원은 점점 깊게 다루어지고 있다. 피어싱은 다소 과격한 표현으로 혐오스럽게 장식하여 보는 이에게 공포감을 느끼도록 하기도 하였다. 코를 뚫어 동물 뼈로 만든 코걸이를 단 아스마트족의 모습이며, 또 뉴기니아 인들은 공포감을 주기 위해 코를 뚫고 투구 풍뎉이 같은 뿔을 찔러 넣어 장식을 하였다. 이러한 장식으로 상대를 위협하고 겁을 주어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켰다(이승은, 2001 : 21). 현재에도 신체 모양을 변형 및 제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 귀걸이, 성형 수술, 코르셋 착용 등이 있다.

이상에서 볼 때 페인팅, 문신, 상흔 등은 피부 상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던 표현방법인데 비하여, 제거나 변형은 신체의 일부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는 변형방법이다. 이와 같이 바디아트는 인체를 예술의 재료로 삼는 것으로 페인팅, 문신, 상흔, 제거, 변형 등을 통한 일시적 혹은 영구적 신체표현의 방법인 신체예술로써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표현 행위의 하나이다.



〈사진 1〉 페이스페인팅
출처: www.joannegair.com



〈사진 2〉 페이스페인팅
출처: www.joannegair.com



〈사진 3〉 바디페인팅
출처: www.bodypainting-festival.com



〈사진 4〉 바디페인팅
출처: www.bodypainting-festival.com



〈사진 5〉 영구 문신
출처: www.imagesearch.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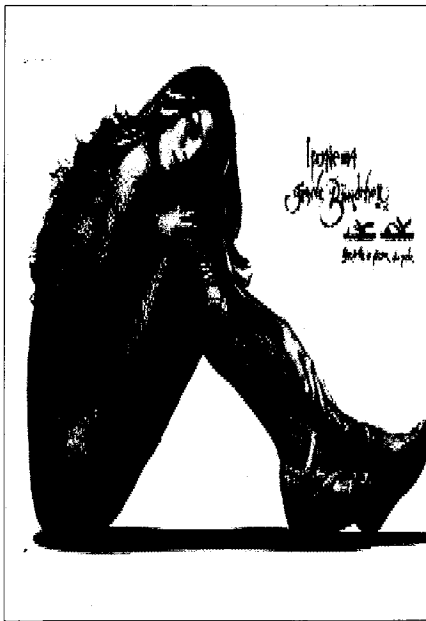
〈사진 6〉 영구 문신
출처: www.imagesearch.naver.com



〈사진 7〉 영구 문신
출처: Shinji Watanabe, *타투어·갤러리*,
2005, p.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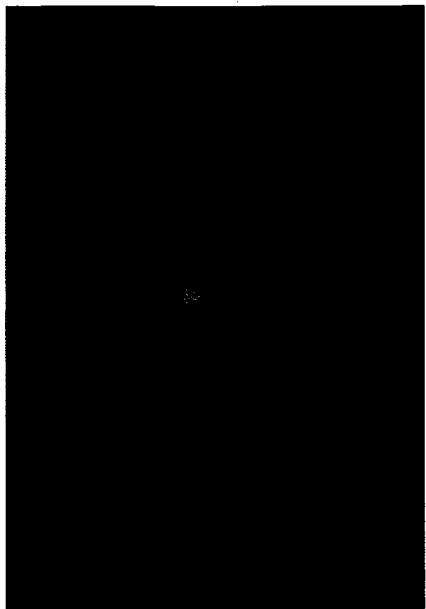
〈사진 8〉 영구 문신
출처: Shinji Watanabe, *타투어·갤러리*,
2005, p.100.



〈사진 9〉 일시적 문신
출처 : www.kr.image.search.yahoo.com



〈사진 10〉 일시적 문신
출처: www.imagesearch.naver.com



〈사진 11〉 일시적 문신
출처: www.doumtatto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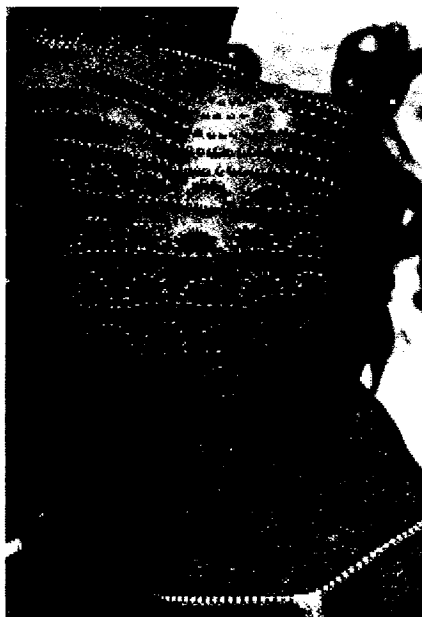
〈사진 12〉 크리스탈 문신
출처: www.salon-korunka.cz



〈사진 13〉 헤나염색
출처: Barry Bish, Body art, 1999, p.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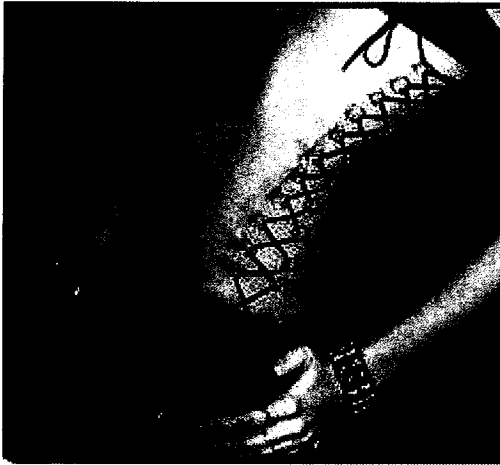
〈사진 14〉 헤나염색
출처: Alain Rustenholz, Maquillage, 2000, p.174.



〈사진 15〉 상흔
출처: Karl Groening, Decorated Skin, 2001, p.135.



〈사진 16〉 상흔
출처: Ettagale Blauer, African Elegance, 2004, p.111.



〈사진 17〉 피어싱
출처: www.wagle.planet.daum.net



〈사진 18〉 피어싱
출처: www.mini.planet.daum.net



〈사진 19〉 피어싱
출처: www.tab.search.daum.net



〈사진 20〉 피어싱
출처: www.tab.search.daum.net

(2) 바디아트의 목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창조적으로 표현하려는 충동을 가지며 외모를 멋있게 하려는 이와 같은 충동은 보편적이다. 어떤 유행으로든 자신의 신체를 장식하지 않는 사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좀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어떤 방법으로든 신체를 변형시키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 심한 고통도 극복한다. 립스틱이나 아이섀도우의 사용도 여기에 속하는 행위들이며, 현대 여성들은 귀를 뚫고 눈썹을 깎으며, 다리의 털도 깎고 성형수술도 한다.

이는 악을 물리치고 행운을 가져오기 위하여, 또는 자연환경이나 사회 환경으로부터의 두려움에서 신체적, 심리적 보호를 받거나 자신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거나 이성의 주의를 끌기 위해 신체의 일부를 은폐하거나 뛰어나게 표현하기도 하였다.

① 주술설

주술설은 원시 신앙적인 주술성의 관점에서 질병, 재해 등의 악령을 피하고 나아가 안녕을 기원하는 원시인들이 신체의 일부에 무엇인가를 붙이는 것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다(이선재, 1998 : 16).

주술설은 착용자에게 악을 물리치고 행운을 가져오는 또는 착용자를 보호하는 마력적인, 종교적인 토템이나 부적을 사용하는 것이다. 토템과 부적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토템의 힘이나 신비함은 소유주와 관계없이 토템과 함께 존재한다. 그러므로 토템은 사거나 팔거나 매매될 수 있으며 즉 그 힘이 상실됨이 없이 건네진다. 이와는 반대로, 부적은 예정된 소유자에게만 마력을 가진다. 그것은 양도될 수 없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이 받

견하면, 그 힘은 모두 상실된다. 어떤 한 사람에게 행운을 주었던 돌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면 단지 조약돌이 된다. 시험을 칠 때 항상 행운을 주었던 의상이나 스웨터는 부적이 될 수 있으나, 그 힘은 그 착용자에게만 주어진다.

많은 원시인들은 토템이나 부적을 상당히 믿는다. 아메리카 인디언 지역 중 에서 태평양의 북서쪽 끝에서 정교하게 만들어진 토템은 가장 주목할 만하다. 에스키모 인들도 부적을 상당히 믿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목이나 손목에 부적을 꿰어서 걸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속옷에다 바느질하여 붙였다. 어떤 경우에는 부적의 상징성이 뚜렷하다. 올빼미 발톱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강한 손을 가지게 한다. 그 의미가 모호한 경우에도 착용자에게는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마릴린혼 루이스구렐, 이화연 외 2인 역, 1992 : 41).

수단 등의 지방에서는 조개껍질이 결혼한 여성에게 번식력을 주고 출산을 돕는 호부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펠로 섬사람들은 영원한 행복을 지키는 수단으로 코의 격막을 뚫었고 피지 제도의 사람들은 그들의 신인 텐지가 지정해 주었다고 믿었던 어떤 유형에 따라 피부에 문신을 하였다(이선재, 1998 : 16~17).

② 심미설

자신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은 인간의 생태적 본능 중의 하나이다. 태고적부터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체의 아름다운 부분에 페인팅이나 장식으로 타인에게 아름답게 보이기를 희망했다.

누바인이 등에 페인팅 한 기린의 의미는 그 동물의 특성을 지니고 싶은 욕망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단지 기린의 고상한 모습을 자신의 몸에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몸은 미학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았으며, 신체의 결점을 보완할 수도 있었다.

아이누족의 문신을 조사한 일본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문신할 나이가 차서

문신을 하고 있는 아이누족 여인은 대단히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아이누족 남성들에게 매력적 대상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아이누족 여성들의 두터운 입술 주위의 문신은 상당히 특이하다. 입술에 루즈를 바른 여성들만을 본 우리들에게 아이누족 여성의 입술주위의 문신은 추하게 보일테지만 아이누족에게 그것은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다(조현설, 2003 : 38).

많은 사람들은 소속집단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아름다움의 정의라고 생각되는 미적 가치기준에 따라 소속집단으로부터 이탈되지 않기 위하여 신체 모양을 만들고 수정하여 신체 형태를 급격히 변화시켰다. 이것은 피부색이 짙을 경우 일반문신으로는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상처를 내고 재를 문질러 상처가 부풀어 오르게 만들거나 상처 부위에 일종의 송진으로 덮어 발라 특정한 무늬를 만들어서 아름다움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원시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었으며 여전히 아프리카 등지에 남아 있는 기이한 패션들, 즉 코를 꿰는 것, 귀를 처지게 늘이는 것, 아랫입술을 둥근 진흙 원반을 넣어 기형적으로 늘이는 것 또는 고리를 끼워 목을 늘이는 것, 입술펴기(lip-stretching), 문신, 상흔, 머리형태 만들기(head-shaping)등이 아름답다는 이유에서 하는 것이며 우리에게는 터무니없어 보인다.

이상과 같이 원시사회 종족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페인팅, 문신, 상흔, 변형, 제거 등 얼굴, 가슴 등의 신체표현은 문화적 관습이자 그들의 미적 가치기준에 따라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보호설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신체적 힘과 피부도 약하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한 보호수단이 필요했다. 또한 신체보호와 더불어 심리적 보호의 차원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감이나 만족을 얻었다.

신체적 보호로서는 적의 눈을 속이거나 수렵할 때 포획물의 흔적을 따라 갈

때 자연환경에 맞추는 위장을 하기 위해 채색을 하였다. 보온의 목적으로 시체에 짐승의 기름을 두껍게 바르거나 이집트의 여인들이 태양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눈을 길게 화장을 하고 곤충들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향료를 사용하였다.

1800년대의 여인들이 백납 분을 사용한 이유가 가스등이나 촛불의 그늘음으로부터 피부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과 아울러 한 낮의 태양으로부터 흰 피부를 보호하는 물리적 보호수단이였다. 동굴의 벽화 등을 통해 나타나는 원시인들의 채색이나 문신은 새의 깃털이나 부리, 짐승의 뿔 또는 식물성 색소 등을 이용하여 얼굴이나 신체를 치장함으로써 전쟁과 사냥 등에서 위안을 얻는 심리적 보호수단이였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한명숙, 2005 : 93).

원시 인류가 몸에 채색이나 문신 등을 한 것은 인간이 어떤 종류의 인간이나 환경으로부터 심리적, 물리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신분상징설

신분, 계급, 종족, 남녀 성의 구별 등 신분 표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페이팅이나 문신을 했다.

동아프리카의 남부 수단³⁾의 딘카 사람들도 나이에 따라 집단을 나눈다. 그들이 성인식을 치르고 어른이 되었을 때 젊은 남자들은 깊은 뿔 형태 혹은 평행선을 그들의 앞이마에 표시한다. 성숙됨을 나타내는 이런 표시는 착용자가 고통스러운 과정을 경험하기에 충분히 용감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자나 남자들은 중요한 사회적 경우를 위해 그들의 몸과 얼굴을 장식한다. 남부 수단에 위치한 많은 실루크인³⁾은 낚시 갈고리로 앞이마의 피부를 떼서 끌어당

3) 아프리카의 수단 남부에 거주하는 나일계(系) 종족. 주로 보리·옥수수 등의 재배에 종사하는 정착 농경민이다.

기고 그때 날카로운 칼로 피부를 잘라낸 뒤 그 부위를 진주로 장식하는 데 그들이 어린이였을 때 만들어진단다. 이런 절개의 형태는 실루크 사회의 일원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해남도 리족의 경우 문신은 신분을 표시하는 수단이어서 신분이 낮은 여자들은 문신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이들의 경우 일반인은 등과 가슴만을 사용할 수 있고 턱과 얼굴을 장식하는 것은 추장만의 특권이고, 귀족은 팔에 문신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문신은 신분의 높낮이 만이 아니라 신분의 또 다른 측면인 결혼의 유무 혹은 성인임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했다. 리족의 경우 여성들의 얼굴만이 아니라 가슴에도 문신의 완성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성 쪽에서 짝으로 맞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타이완 고산족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남자들은 결혼 후에 반드시 어깨, 등, 가슴, 손과 팔, 겨드랑이 등에 문신을 한다. 여성들도 결혼을 할 때 두 뺨에 망사형 무늬의 문신을 해야만 했다(조현설, 2003 : 34~35).

이상에서 보면 페인팅이나 문신은 종족이나 지역마다 신체표현의 위치나 형태, 크기, 신체에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신분표시기능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⑤ 성적 매력성

모든 사람들은 이성의 주의를 끌기 위해 인체를 여러 방법으로 꾸미거나 변화시킨다. 그러나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과 성적으로 매력적인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다. 각 사회의 구성원들은 서로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가지는데, 이 기준들은 다양하다. 모든 사회는 육체적 매력에 대해 각기 고유의 개념 미에 대한 독자적인 관념을 갖는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뚝뚝한 정도로 평가한다. 그래서 젊은 남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길 원하는 여성들은 살찌기 위해 집에 들어가서, 몇 주 동안 게걸스럽게 먹는다. 그녀가 그 과정을 마치고 나올 때는 아름답게 여겨지며, 원하는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소녀들이 날씬해야 한다고 고무하며, 몸무게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기 위해 체중조절도 하도록 하므로, 미에 대한 아프리카의 예는 미국인에겐 이상한 것이다. 또 다른 아프리카 부족에서는 이상적인 부인은 피부에 윤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부인들은 녹인 버터를 이용한다. 줄루⁴⁾(Zulu)족 여성들은 윤이 나게 하기 위해 하마 기름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아름답고, 성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 비만하거나 기름을 바르는 것은 우리에게 불쾌하게 여겨지지만, 해롭진 않다(마릴린혼 루이스구렐, 이화연 외 2인 역, 1992 : 38~39).

이와 같이 장식의 모든 형태들은 공통적으로 질병을 피하고 안녕을 기원하고 신체를 보다 아름답게 꾸미려는 열망, 신체를 장식함으로써 자신의 용맹, 힘, 기술 우월성 등을 과시하기 위해서, 환경으로부터 심리적, 물리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신분, 계급, 종족, 남녀 성의 구별 등 신분 표시를 하기 위한 목적,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등의 목적에서 기인함을 알 수 있다. 현대인들은 신체 장식을 심리적 신체적 보호나 주술적 목적보다는 미적 욕구 충족과 적극적인 자아표현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아름다움과 매력적인 것은 평가하는 기준과 관념이 다양하며, 아름답지 않고 추하며 때로는 불쾌하기까지 하다.

4) 아프리카의 반투어족(語族) 옹구니종족군에 속하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나탈주(州)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종족. 줄루족은 주변의 여러 종족을 거느리고 18세기 말에 강대한 줄루 왕국을 세워 불루인(人) 및 영국 식민세력에 강력히 반항하였으나, 1879년 마침내 영국에 패배하였다.

3) 바디아트의 표현기법

(1) 회화적 표현기법

회화적 기법은 여러 가지 회화적 요소를 이용한 바디아트의 표현기법으로서 바디아트의 표현기법들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다. 자연물을 주제로 묘사하거나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형상화시켜서 비교적 보는 이로 하여금 대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 표현기법은 메시지 전달이 가장 용이하다.

대표적인 예로 꽃, 동물, 바다 속, 우주 공간, 태양, 인물 등 다양하며 회화적인 기법 또한 정밀한 사실묘사, 관념적 묘사, 약화 등 바디아티스트의 의도나 역량에 따라 다양해진다.

색상의 사용도 자유로워서 모든 색상을 다양하게 쓸 수 있다. 하지만 표현하는 사람의 색채 감각이나 개인적인 취향 또는 주제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회화적 표현기법의 바디아트는 회화적 요소에 충실하게 작업하여 일반 회화작품과 유사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또한 바디아트 작업에서는 똑같은 주제라도 회화적 기법이 아니라 에어브러쉬 기법이나 프로젝트 일루미네이션 기법 등 기법에 변화를 주면 전혀 다른 새로운 표현 방식이 되기도 한다.

(2) 그래픽적 표현기법

그래픽적 표현기법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나타나는 형상의 대상을 알 수 없는 추상적인 모티브를 주제로 한다. 선의 나열, 흑과 백의 조화,

스톤들의 조화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들로 찍는 행위 등이 있으며 색의 배열 또한 규칙적이거나 불규칙적으로 사용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여러 표현기법들을 혼합해서 표현할 수 도 있으며 보다 다양한 기법으로 전개할 수 있다.

(3) UV발광물감을 이용한 표현기법

수성물감인 UV발광물감을 이용해 재료자체의 효과로 이미지를 극대화시킨 기법으로써 일반 조명에서도 색상을 보여주지만 블랙라이트에서는 보다 선명한 색상으로 발광한다. 일반조명에서는 불투명하게 보이지만 블랙라이트에서는 투명한 불빛으로 보여진다.

이 물감은 일반 수성 바디페인팅 물감과 겹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먼저 일반 물감으로 그라데이션 표현을 하고 난 후 다시 UV발광물감으로 그 위에 작업할 수 있다. 하지만 두 가지 물감을 섞어서 사용하면 물감의 발광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 이런 특징을 살려서 디자인하여 페인팅한 작품은 무대공연이나 쇼 무대에서 특히 많이 활용된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이 기법을 이용해 활발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용 공연 시 하체는 블랙타이즈를 신고 상체만 UV발광물감을 이용해 페인팅하여 블랙라이트를 켜고 공연을 하면 마치 상체만 허공에 떠서 움직이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박혜선, 2002 : 16).

이 재료를 써서 페인팅 할 때는 이 물감의 성질과 효과를 사전에 확인하고, 무대의 크기, 연기자의 활동 범위, 블랙라이트가 작품에 반응할 수 있는 거리 등을 잘 계산하여 작업에 임해야 한다.

(4) 에어브러쉬 기법

에어브러쉬는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영역으로의 메이크업 현실화를 위한 제품으로 이전보다 더 빠르고 섬세한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세심한 그라데이션의 효과로 인해 완벽한 볼륨을 표현하며 또한 다양한 모티브의 표현에 있어서 자기만의 독특한 재료들을 작업에 도입시킬 수 있게 되었다. 에어브러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용하게 될 기계와 재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모델의 피부상태, 메이크업 지속시간, 장소 등 여러 가지 작업 조건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여 아티스트의 독창성을 높일 수 있는 작품을 완성시킬 수 있다.

에어브러쉬 기법은 이미 오래 전부터 다른 분야에서 대중화된 특수기법으로 최근 바디아트 작업 시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콤프레셔로 물감을 일정한 공기의 압력으로 밀어내고 에어브러쉬 건을 통해 원하는 부위에 채색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바디아트 작업시 에어브러쉬의 사용이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는데 뿌리는 방법에 따라 농담을 조절할 수 있어 능률적이고 손으로 직접 칠하는 것보다 정교한 그라데이션과 작업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얇은 금속이나 비닐판 등에 원하는 문양의 틀을 만들어 원하는 모양의 판을 몸에 대고 에어브러쉬로 뿌리거나 붓이나 스폰지로 찍거나 두드려서 표현할 수도 있으며 이것은 일정한 형태의 디자인이나 정교한 디자인 연출이 가능하다.

(5) 오브제를 활용한 표현기법

바디아트에 있어서 오브제의 개념은 풍부한 표현의 효과를 제시하면서 조형

성을 가미해 새로운 흥미를 유발한다.

바디아트에 나타난 조형적 오브제는 기존의 메이크업 제품만이 아니라 아티스트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적합하다면 어떠한 것도 소재로 가능하며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을 제한 없이 부착하여 조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얼굴에 레이스를 붙이거나, 스톤을 장식하기도 하고 비닐 소재를 붙이기도 한다. 이처럼 바디아트에 오브제는 머드나 석고, 종이, 깃털, 비닐, 스톤, 레이스, 금속, 직물 등의 인체에 무해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바디아트의 다양한 소재와 이러한 소재에 어우러지는 다양한 기법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또한 이미지를 구체적인 그림보다 입체적인 인체의 윤곽을 살려, 소재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구조적 형태를 이루고 있는 어느 한 부분이나 전체를 오브제화 한 사물로 변형하여 새롭게 형상화시킴으로써 그 형태에 대한 고정관념에 충격을 주는 표현방법이다(유정주, 2003 : 28).



〈사진 21〉 회화적 기법
출처: www.bodypainting-festiva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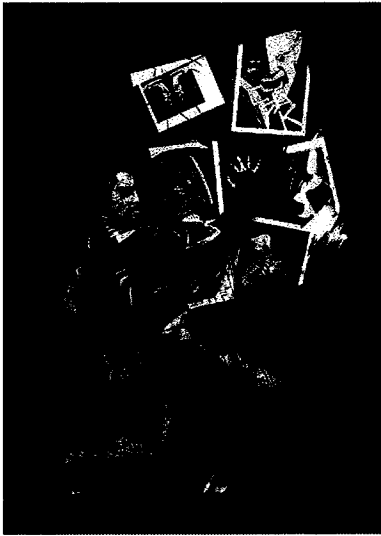
〈사진 22〉 회화적 기법
출처: www.joannegair.com



〈사진 23〉 회화적 기법
출처: www.joannegair.com



〈사진 24〉 회화적 기법
출처: www.bodypainting-festiva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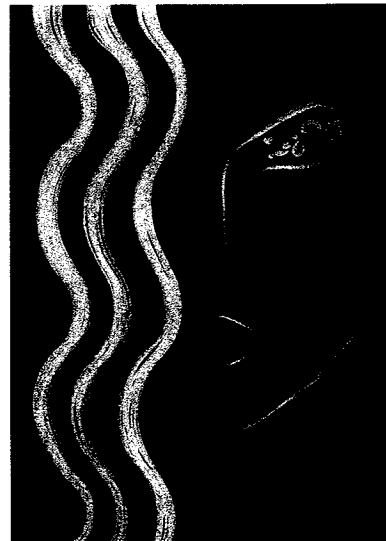
〈사진 25〉 그래픽적 기법
출처: www.bodypainting-festival.com



〈사진 26〉 그래픽적 기법
출처: www.bodypainting-festival.com



〈사진 27〉 그래픽적 기법
출처: www.bodypainting-festival.com



〈사진 28〉 UV물감을 이용한 표현기법
출처: Alain Rustenholz, Maquillage, 2000, p.172.



〈사진 29〉 UV물감을 이용한 표현기법
출처: www.bodypainting-festival.com



〈사진 30〉 UV물감을 이용한 표현기법
출처: www.bodypainting-festival.com



〈사진 31〉 UV물감을 이용한 표현기법
출처: www.bodypainting-magazine.com



〈사진 32〉 에어브러쉬 기법
출처: www.bodypainting-magazine.com



〈사진 33〉 에어브러쉬 기법
출처: www.bodypainting-festival.com



〈사진 34〉 에어브러쉬 기법
출처: www.bodypainting-festival.com



〈사진 35〉 오브제를 활용한 기법
출처: Serge Lutens, Serge Lutens, 1998,
p.129.



〈사진 36〉 오브제를 활용한 기법
출처: Serge Lutens, Serge Lutens, 1998, p.123.

〈표 1〉 바디페인팅의 표현 기법

표현 기법	특징
회화적 기법	-바디 페인팅 작업 형태 중 가장 많이 사용 되는 기법. -주로 자연물이나 대상을 형상화시켜 주제의 메시지 전달이 용이. -다양한 색상 사용 가능. -일반 회화 작품과 유사한 느낌을 주기도 함.
그래픽적 표현기법	-추상적인 모티브를 주제로 함. -선의 나열, 흑과 백의 조화, 스톤들의 조화, -색의 규칙적 또는 불규칙적인 표현. -여러 표현기법들의 혼합.
UV발광물감을 이용한 표현기법	-블랙라이트 조명아래에서만 선명한 색상으로 발광. -일반 수성 바디 페인팅물감과 겹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물감의 발광효과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 -무대 공연이나 쇼 형태에 주로 사용.
에어브러쉬 기법	-공업용 도색용 기계인 컴프레서를 이용해 물감을 일정한 압력으로 밀어내는 것, 건(gun)을 통해 원하는 부위에 채색. -작업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 -정교한 그라데이션 가능.
오브제를 이용한 표현기법	-머드팩, 석고, 종이, 깃털, 비닐, 스톤, 레이스, 금속, 직물 등의 다양한 재료를 사용함. -구체적인 그림보다 입체적인 인체의 윤곽 중시.

2. 질감표현에 관한 고찰

1) 질감의 개념과 특성

질감은 형태, 색채와 함께 필수 조형요소 중 하나로 실제로 물체의 표면이 갖는 특성이나 안료의 성질, 물적 대상의 양감 등을 가지고 촉각, 시각적으로 환기시키는 효과를 말한다. 따라서 질감은 모든 물체의 표면적 특징으로 물리적 구조와 표면 고유성을 말하며 질감으로 물체의 성격을 지각할 수 있다. 질감을 뜻하는 말은 영어로 텍스처(Texture), 독어로는 마티에르(Matiere)라고 하며 미술에서는 질료라고도 한다.

질감의 표현은 특히 현대 추상회화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추상미술이 1950년대를 넘어서면서 추상의 공허에서 벗어나려는 하나의 시도로써 좀 더 촉감에 와 닿는 현실감을 추구하려는 탐구가 있었다. 알데르토 부리(A. Burri)는 2차 대전 중에 상처에서 나는 피가 붕대에 스며드는 것에서 강한 자극을 받아서 마대의 엉마조각을 깨맨 것 같은 화면 위에 색상을 추가하여 현실감 있게 표현하였다. 추상작가 안토니 타피에스(A. Tappies)도 두꺼운 시멘트벽에서 느껴지는 걸끄러운 재질감을 살렸다. 루오의 매우 두껍게 바른 화면에서 독특하고 신선한 질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질감에의 추구는 확실히 2차 대전을 겪고 나서 본격화되었다.

질감은 다른 조형요소 특히 형태보다 더 표현적인 특성이 강하다. 예를 들면 형태가 더 강조된 그림보다 질감이 더 강조된 얼굴이 표현적인 특성이 강하다. 고희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물결치는 듯한 질감, 추상표현주의 작품에서 보이는 질감 등은 더 강한 표현성을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우하우스(bauhaus)⁵⁾ 예비 과정의 교육에서도 질감에 대한 수업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

었다. 시각은 조형예술에 있어서 상대 개념으로 촉각을 수반한다. 시각에 비해 촉각은 감각기관 가운데 가장 저급한 것이지만 인간 성장 초기에 있어서 유효한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즉, 어린이는 만져봄으로써 사물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촉각에 의해서도 사물의 형태나 길이가 지각되며 그 표면이 갖는 질감도 정확히 인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촉각에 의한 질감은 그 사물의 본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며 시각에 의해서보다는 촉각에 의해서 더욱 정확한 질감을 파악하게 된다. 시각에 의해서도 촉각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곧 시각적 질감으로 고유한 색채 자체에서 느낄 수도 있으며 색채의 표현방법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새털과 같이 부드러운 질감으로 느끼기도 하고 요철의 질감으로 느끼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질감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준다.

첫째, 화면에 풍부함과 시각적 쾌감을 준다. 매끈하기 보다는 결끄러운 것이 있을 때 색다르고 다양하여 새롭게 전환시켜 감각을 즐겁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의 지나친 구사는 오히려 역겨운 느낌, 억지스러운 강요, 전체적인 조화로부터의 고립과 분열 등의 단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둘째, 질감의 표현은 감성을 자극하여 정서적인 효과를 준다. 루오의 그림에 서는 마치 허스키한 저음 가수의 목소리 넘치는 정서적 효과를 엿볼 수 있었다. 또한 경쾌한 울동감적인 터치들이 강조되고 있는 고희에서도 마찬가지다.

셋째, 공간감의 효과이다. 즉, 질감은 공간감을 창출하는데 기여한다. 예컨대 자갈밭이 있다고 할 때 가까운 것은 크고 진하게 그 질감이 느껴지며, 먼

5) 1919년 건축가 발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가 미술학교와 공예학교를 병합하여 설립하였다. '바우하우스(Bauhaus)'라는 이름은 독일어로 '집을 짓는다'는 뜻의 하우스바우(Hausbau)를 도치시킨 것이다. 주된 이념은 건축을 주축으로 삼고 예술과 기술을 종합하려는 것이었다.

것은 점점 작고 흐리게 그 질감이 느껴져서 전체의 화면을 앞에서부터 점차로 뒤의 깊숙한 곳으로 펼쳐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수많은 타이어가 널려 있을 때, 그것들의 미시적인 모습과 거시적인 모습은 공간감에서 서로 다른 독특한 느낌을 창출한다.

질감의 특성을 결정하는 네 가지 요인은 화지표면, 표면에의 첨가물, 재료 자체, 그리고 재료를 다루는 작가의 기법이다. 질감은 명암이나 선만큼 중요한 요소이면서 작품에 사용된 재료와 물질을 다른 요소들보다 더욱 명확하게 보여 주는 면이 있다. 질감에는 기본이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실물 그대로의 것과 모사(模寫)된 것, 창조된 것 등이다(클라우디아 베티 외1인, 하영식 역, 1987 : 134).

2) 질감의 분류

실제적으로 질감을 갖지 않는 물체란 아무것도 없다. 단지 어떤 것이 이것보다 “더 질감적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다. 즉 밋밋한 종이보다는 마른 나무껍질이 더 질감적이며, 아기의 피부보다는 할머니의 피부가 더 질감적이라고 표현된다(권은주, 1989 : 13).

질감에는 두 개의 범주가 있는데, 시각적 질감과 촉각적 질감이 그것이다.

(1) 시각적 질감(Visual texture)

시각적 질감은 촉각적인 감각의 경험에 근거하여 눈으로 느끼는 실제적으로 만져지지 않는 질감적 표현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질감으로 사물을 구성하는 재료, 구조 그리고 사물에 대한 빛의 반사, 굴절, 투과정도에 따라

인식되는 질감이다.

시각적 질감은 우리에게 익숙한 색과 명암, 패턴을 만들어냄으로써 촉각적 감흥을 유발할지라도 문자 그대로 이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질감으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질감이다.

시각적 질감의 최고 상태를 트롱프 뢰이유 (Trompe l'oeil)⁶⁾라고 하는데 눈을 바보로 만들기라는 의미의 이 프랑스어는 보통 눈속임 그림을 말한다. 이러한 그림에서는 모든 것들이 정확하고 꼼꼼하게 묘사되는데 화가는 그 색상이나 명도를 똑같이 재현해 낸다. 이러한 그림들은 그것이 실물과 너무도 똑같아 순간적으로 실물을 대하는 것 같은 착각을 갖게 되는데 이 때문에 눈을 속이는 그림이 된다. 물론 그것이 실물이 아닌 그림일 뿐임을 알고 있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더욱 꼼꼼이 들여다보게 된다.

오늘날엔 카메라로 사물의 디테일을 쉽게 잡아낼 수 있어서 이러한 종류의 그림에 관심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효과를 만들어 내는 화가의 기술에는 우리 역시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미카엘 플라나간이 그린 높이 33cm의 회화작품인 사진 37은 모든 부분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세부까지 정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여러 분야에서 트롱프 뢰이유의 전통은 계속되고 있는데 메릴린 레빈의 조각품인 사진 38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사실적이다(데이비드 A 라우어 외 1인, 이대일 역, 2004 : 166). 이것이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환영감이 너무도 뛰어나 시각적으로 잠시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시각적 질감의 종류는 장식적 질감, 자연적 질감, 기계적 질감이 있다.

장식적 질감은 질감 그 자체는 형태에 영향을 주지 않고 표면에만 질감이 나타난다. 손으로 표현되어지거나 특수한 도구의 사용으로 표현되어 지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획일적인 특성이 느껴지기도 한다.

6) 실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림.

자연적 질감은 표면상의 질감인 동시에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형태와 질감은 분리될 수 없다는 예로써 손으로 그린 우연적인 형태가 이에 속한다.

기계적 질감은 특수한 기계나 도구의 사용으로 얻어진 질감이 아니면 사진이나 컴퓨터 그래픽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질감으로써 시각적 요소로 감상자에게 강한 조형성을 전달하는데 도움을 준다.

시각적 질감을 표현한 형용사에는 고급스러운, 화려한, 화려하지 않은, 약한, 인공적인, 갑갑한, 시원한 등의 표현이 있다.

(2) 촉각적 질감(Tactile texture)

오감 중 촉각은 질감의 본질로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지각하는 감각이므로 동양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도자기나 섬유 등의 질감에 대하여 고도의 식별이 있었으나 촉각이 조형의 요소로서 새로운 견해로 평가하게 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이다. 1921년 말에 미래파의 지도자 마리네티(Marinetti)가 촉각주의(텍티리즘-Tectilism)의 선언을 발표한 것은 그 출현의 하나라고 하겠다. 그의 선언과 열망에도 불구하고 촉각을 위한 새로운 예술은 아깝게도 성장하지 않았으나 촉각에 대한 관심이 오늘날의 조형 전반에 걸쳐 높이게 하였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조준영, 1984 : 141).

초기의 바우하우스에서도 질감에 대한 훈련을 디자인의 기초교육 과정에 도입하였다. 그 과정으로는 각종 재료나 물체를 수집하여 손의 감각으로 재질을 느낄 수 있게 한 것이다(곽대웅 외 7인, 1990 : 727).

촉각에 의해 대상의 재질을 파악하는 촉각적인 질감은 대상의 표면이 손가락의 감각에 의해 인식되는 질감으로 젖은, 부드러운, 얇은, 두꺼운, 건조한, 딱딱한, 거친, 편편한, 뾰뾰한, 매끄러운, 누굴누굴한, 치밀한, 성긴, 까칠까칠

한, 차가운, 따뜻한 등의 촉각적인 질감 표현을 볼 수 있다.

실제의 재료를 이용하는 건축이나 조각은 촉각적인 질감, 즉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질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그림에서의 촉각적인 질감이란 임파스토(Impasto)⁷⁾기법으로 그려진, 거칠고도 입체적인 표면을 말한다.

미술에서 환영주의에 대한 필요성과 욕구가 사라짐에 따라 촉각적인 질감이 훨씬 일반적인 양상으로 되었으며 그림은 이제 캔버스에 칠해진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림의 표면을 두텁게 하든 얇게 하든 그것은 그것이 화가의 또 다른 선택요소가 되었다. 고희는 실제로 물감을 더욱 표현적인 요소로 이용했던 전형적인 화가였다. 그의 작품의 부분도인 사진 39는 된 물감을 두텁게 사용한 짧은 필치가 흥분된 듯 소용돌이치면서 고희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입체적으로 뛰어나온 물감자국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다.

쏜튼 다이얼의 양각화인 사진 40은 그림에 질감이 있는 실물을 붙여 놓고 있다. 이것은 명도 대비나 화면의 소재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실물 질감이고 어느 것이 시각적인 질감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군데군데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이 그림에는 깡통이나 병, 그리고 죽은 고양이 등이 붙어 있는데 그림과 실제의 것들이 뒤섞여 통일된 구성을 만들어 내고 있다. 캔버스에 실물을 덧붙이는 현대적인 작품에서는 그림과 조각의 경계가 사라지게 된다(데이비드 A 라우어 외 1인, 이대일 역, 2004 : 166).

그림의 표면에 촉각적인 다양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흔히 그림용 나이프나 큰 붓으로 불규칙적인 터치를 준다면 페인트와 석회 등의 다른 재료를 섞어 지나칠 만큼 풍부한 촉각적인 표면을 나타내기도 한다. 촉각적 질감인 콜라주(collage)는 빠삐에 끌레 (papier-colle)가 좀더 확대되어서 실제로 종이, 형짚, 나뭇가지, 실 등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초기 팝 아트 작가들이 추상표현에 대항하여 예술 표현과 현실 세계와의 직접적인 교류를 하

7) 물감을 두텁게 사용하여 그리는 방법.

자는 의도에서 한때 왕성하게 추구했었다.

· 이와 같은 촉각적 질감에는 가용적 질감, 조절적 질감, 유기적 질감이 있다 (김명순, 2004 : 16).

가용적 질감은 재료의 성질을 그대로 표현한 질감으로 종이, 천, 나뭇가지, 돌 등의 재료가 찢어지거나 있는 그대로 사용된 질감을 말하며, 조절적 질감은 재료의 성격이 변형되어 다르게 느껴지는 표현을 말하는 것으로 종이의 구김이나 주름 등을 표현한 질감이다. 재료가 변형되어 표현 되었다고 하여 재료 자체를 알아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유기적 질감은 여러 종류의 재료가 모여 새로운 질감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나무 조각이나 천, 종이의 조각 등 여럿이 모여서 새로운 표면을 만드는 것으로 대부분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구성한 예가 많으며 새로운 표면이 더 큰 감흥을 준다.



〈사진 37〉 시각적 질감
출처: 이대일 역, 조형의 원리, 2002, p.166.



〈사진 38〉 시각적 질감
출처: 이대일 역, 조형의 원리, 2002, p.167.



〈사진 39〉 촉각적 질감
출처: 이대일 역, 조형의 원리, 2002, p.160.



〈사진 40〉 촉각적 질감
출처: 이대일 역, 조형의 원리, 2002, p.161.

3. 바디아트에 표현된 질감사례

문화의 발달과 더불어 현대에 있어 바디아트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패션쇼, 연극, 퍼포먼스 등에 볼 수 있는 바디아트를 보면 대부분이 색과 형태표현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바디아트에 있어서 질감표현은 온 몸의 피부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각되고 기억되는 촉각적 질감과 우리의 대뇌에 기억되고 저장되는 시각적 질감이 포함하는 것으로서 아티스트가 만들어 내는 새로운 질감의 근원은 자연의 질감에 근거한다. 부드럽다, 거칠다, 갈라진다, 말랑말랑하다, 딱딱하다, 글로시하다, 미끈미끈하다 그리고 금속 질감, 흙의 질감, 다양한 식물의 효과, 촉촉한 느낌, 균열감과 같이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졌을 때의 느낌으로 표현된다. 또한 색이나 명암효과, 표면지문 등을 통해 촉각적 감각을 느낄 수 있다.

바디아트의 질감은 매우 중요하며 작품의 이미지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용하는 재료와 도구에 따라 질감의 효과가 달라진다. 인체에 페인팅을 했을 때 붓을 사용했을 때와 스펀지를 사용했을 때의 느낌은 아주 다르다. 일반 스펀지, 블랙스펀지, 라텍스 스펀지 등 스펀지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질감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이재형, 2004 : 26). 바디페인팅에 있어서의 질감은 여러 가지 느낌을 달리하고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1) 시각적 질감의 바디아트

다양한 질감 표현은 여러 가지 밝고 어두움에 따라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질감을 느끼게 한다. 물론 모든 물체는 비록 그것이 지루할 정도로 부드러운

평탄함만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표면적 특성을 갖고 있다.

바디아트에서의 시각적인 질감은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진 41은 기와를 인체에 표현하여 시각적인 질감이 잘 드러나도록 한 작품이다. 사진 42는 블루바탕에 그래픽적인 표현으로 질감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사진 43은 건축물과 인체를 하나로 보이게 한 작품으로써 만져보고자 하는 충동을 일으킨다. 그리고 사진 44는 신체에 가죽의 질감과 나무의 질감을 잘 살린 작품으로 실제적인 질감이 잘 나타나고 있다. 사진 45는 건축물과 같이 표현한 작품으로써 시각적 질감과 촉각적 질감이 잘 표현되어 있다. 사진 46은 신체에 옷을 입은 듯이 페인팅하고 포인트 부분을 스톤으로 장식하여 시각적이면서도 촉각적인 감흥을 얻을 수 있는 작품이며 사진 47 또한 에어브러쉬를 이용하여 신체의 반은 그래픽적으로 표현하였고 나머지 반은 스톤으로 장식하여 시각적이면서도 촉각적인 질감이 잘 표현된 작품이다.

2) 촉각적 질감의 바디아트

촉각적 질감은 눈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져서 느낄 수도 있는 질감으로 2차원의 평면에서 3차원의 양각으로 발돋움 하는 형태이다. 실제의 재료를 사용하는 건축과 조각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질감을 가지고 있다. 바디아트에 있어 촉각적인 질감이란 색칠이 고르지 못한 표면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아티스트가 물감을 부분적으로 얇거나 두껍게 사용하거나 붓으로 두드린다던지 거친 스폰지나 부드러운 스폰지, 또한 신체에 부착할 수 있는 재료들을 사용하여 인체의 표면에 실질적인 질감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거칠거칠하거나 부드럽거나 밋밋하거나 장식적이거나 등으로 설명될 수 있는 뚜렷

한 질감의 특징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만지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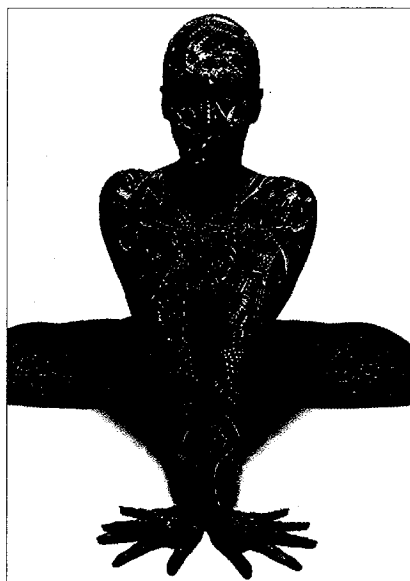
이처럼 촉각적인 질감은 감각적 과정을 유발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바디아트에서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추세이다.

사진 48은 2003 F/W 부디카 컬렉션에 선보였던 작품으로 머리에서 얼굴까지 스톤을 연결시켜 입체감을 주었으며 까칠까칠하고 차가우면서도 광택 나는 질감이 살아있으며 사진 49는 흑인의 여성에게 유분기가 많은 제품으로 여체의 라인을 돋보이게 한 작품으로써 매끄러우면서도 젖은 듯한 질감이 그대로 잘 표현되어있다. 그리고 사진 50은 신체에 주걱으로 바른 듯한 느낌으로 페인팅용 물감을 두껍게 발라 두꺼운 질감효과와 부드러운 질감까지도 느껴진다. 사진 51은 석고를 얇게 발라 갈라지는 질감과 얇고, 건조한 질감표현을 느낄 수 있다. 아울러 사진 52는 브론즈컬러를 이용하여 화려하면서도 광택 나는 질감을 그대로 볼 수 있다.

바디아트에서의 질감 표현은 다양한 재료와 여러 기법들로 하여금 새로운 질감을 보여줄 것이며 심지어 어떤 대상물이 생각나지 않을 경우에도 기억 속에서 감각적 반응이나 촉각적인 감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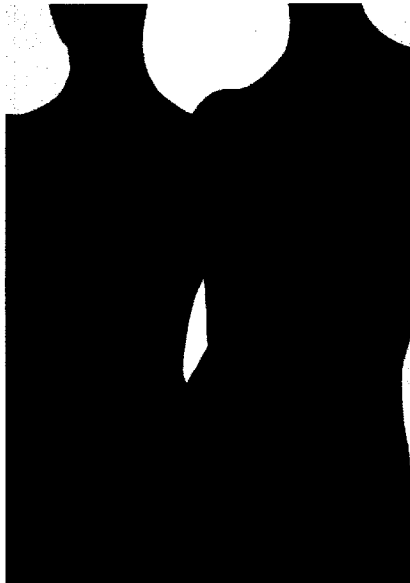
〈사진 41〉 시각적인 질감
출처: www.jinamall.com



〈사진 42〉 시각적인 질감
출처: www.joannegair.com



〈사진 43〉 시각적인 질감
출처: www.joannegair.com



〈사진 44〉 시각적인 질감
출처: www.jinamall.com



〈사진 45〉 시각적인 질감 및 촉각적인 질감
출처: www.joannegai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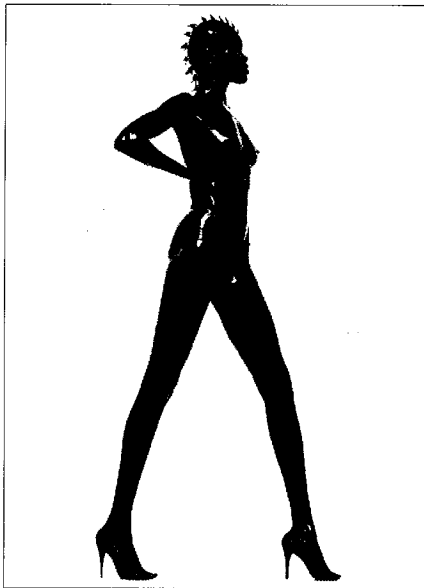
〈사진 46〉 시각적인 질감 및 촉각적인 질감
출처: www.bodypainting-festiva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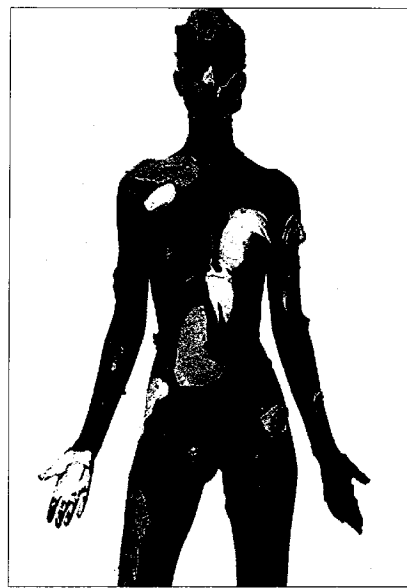
〈사진 47〉 시각적인 질감 및 촉각적인 질감
출처: www.bodypainting-festival.com



〈사진 48〉 촉각적인 질감
출처: 보그 코리아 2003.3, 2003 F/W 부디카



〈사진 49〉 촉각적인 질감
출처: www.joannegair.com



〈사진 50〉 촉각적인 질감
출처: www.joannegair.com



〈사진 51〉 촉각적인 질감
출처: www.joannegair.com



〈사진 52〉 촉각적인 질감
출처: www.joannegair.com

III. 작품제작 및 해설

1. 작품제작 의도 및 방법

오늘날 바디아트 분야는 문화산업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예술의 장르인 인체연출로 발전되어가고 있으며 다양한 기법과 표현방법들로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디아트를 인체에 여러 가지 장식방법과 도구를 이용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장식, 변형하는 페인팅, 문신, 상흔, 염색, 변형, 제거를 포함하는 신체예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작품 제작은 현실적으로 제작이 어려운 상흔, 제거, 변형, 영구 문신을 제외한 페인팅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제까지의 바디아트가 색과 형태 위주의 표현이 대부분으로 이에 본 연구자는 질감의 특성을 이해하여 질감표현 중에서도 촉각적인 질감을 위주로 신체에 적용해 봄으로써 바디아트분야 작품 활동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질감의 특성을 이해하여 회화적 표현기법, 그래픽적 표현기법, UV발광물감을 이용한 표현기법, 에어브러쉬를 이용한 표현기법, 오브제를 활용하고 아쿠아 컬러크림, 머드팩, 석고팩, 은박, 금박 등 다양한 바디아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까칠까칠한, 건조한, 차가운, 소프트한, 매트한, 딱딱한, 뽁뽁한, 건조한, 하드한, 광택있는, 화려한, 갈라진, 거친 등의 질감을 표현하였다.

2. 작품 및 해설

【 작품 1 】

표현기법 : 회화적 표현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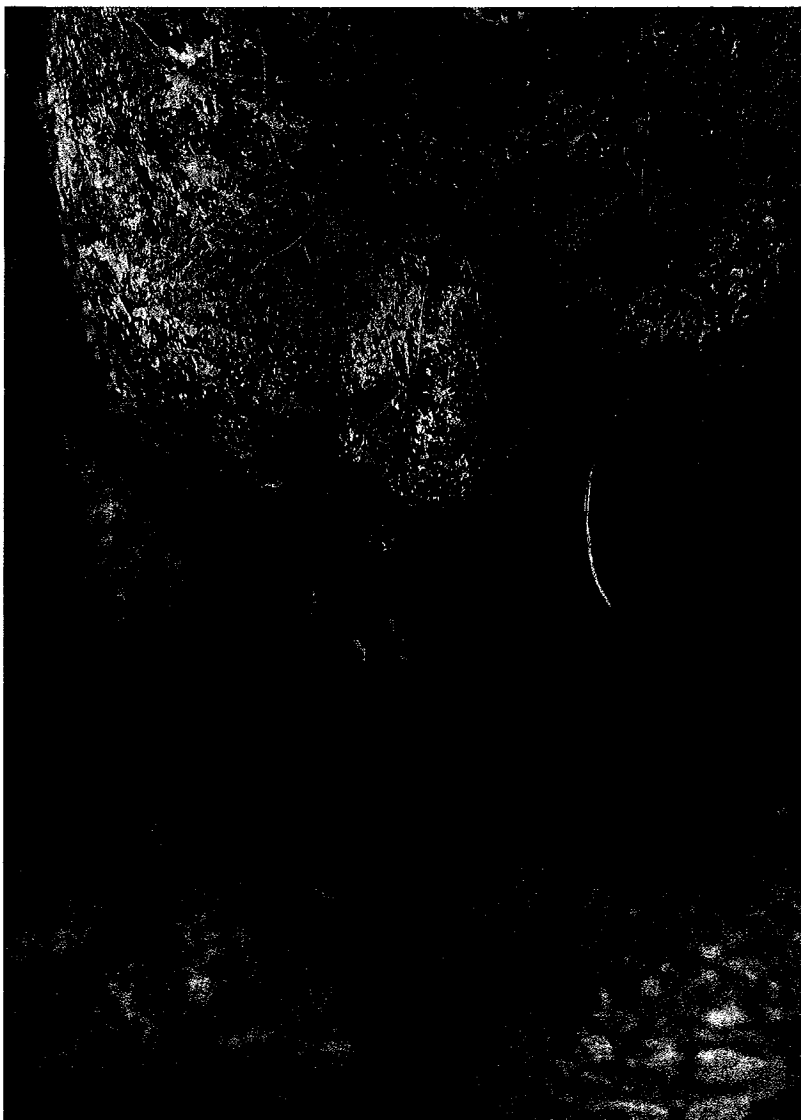
질감표현 : 까칠까칠한 질감.

재 료 : 머드팩, 아쿠아 컬러크림, 실.

작품해설 : 까칠까칠한 촉각적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머드팩을 사용하였다.

머드팩이 마르면 수분이 증발되어 표면이 까칠해지는데, 이러한 효과를 이용하였다. 전신에 머드팩을 붓으로 두들기듯 바르고 난 후 팩이 마르기 전에 옐로우, 그레이, 블랙 수성 컬러크림을 스폰지를 이용하여 두텁게 터치하듯 덧발라 주어 표현하였다.

또한 그레이 수성 컬러크림을 화이트 실에 발라 전신에 휘감아 줌으로써 현실에 갇힌 우리들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옐로우 컬러를 통해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하고자 하였다.



〈작품 1〉

【 작품 2 】

표현기법 : 회화적 표현기법

질감표현 : 건조하고 차가운 질감표현

재 료 : 은박, 아쿠아 웨트 컬러물감, 아쿠아 컬러크림, 컬러파우더

작품해설 : 블루 아쿠아 웨트 컬러물감을 몸에 붓으로 깔끔하게 발라준 후 한쪽 어깨와 가슴부분에 화이트 아쿠아 컬러크림을 스폰지로 두드리는 방법으로 발라주었다. 그리고 화이트 컬러크림을 바른 부분 위로 은박을 부착시켜 차가우면서도 건조한 질감을 표현하였다.



〈작품 2〉

【 작품 3 】

표현기법 : 에어브러쉬 기법과 오브제를 활용한 표현기법

질감표현 : 매트하면서 거친, 소프트한 질감표현

재 료 : 에어브러쉬 리퀴드 컬러, 석고, 글리터스

작품해설 : 먼저 옐로우, 오렌지 컬러를 에어브러쉬를 이용하여 도포한 후 신체의 일부분에 석고를 두텁게 바른 후 다시 석고 위에 에어브러쉬를 이용하여 옐로우 컬러를 살짝 뿌리고 나서 글리터스를 뿌려주었다.

이 작품은 시간이 경과되었을 때 석고가 굳어지면서 나타나는 매트하면서 딱딱한 질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석고의 바르는 방법에서 스폰지로 두드리듯 바르는 기법으로 생크림의 소프트한 질감도 느껴진다.



〈작품 3〉

【 작품 4 】

표현기법 : 페인팅 표현기법

질감표현 : 시각적인 질감표현

재 료 : 아쿠아 웨트 컬러물감, 아쿠아 컬러크림, 대패밥

작품해설 : 통나무의 단면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작품으로써 아쿠아 웨트 컬러물감과 아쿠아 컬러크림을 붓으로 그라데이션하여 농담처리를 하였다. 화이트, 옐로우, 오렌지, 블랙컬러를 믹스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컬러가 보이도록 해서 나이테를 표현하였으며 여기에 어우러질 수 있도록 대패밥을 이용하여 헤어장식을 하였다.



〈작품 4〉

【 작품 5 】

표현기법 : 그래픽적 기법

질감표현 : 뽁뽁하고 건조한 질감표현

재 료 : 아쿠아 컬러크림

작품해설 : 화이트 아쿠아 컬러크림을 파렛트에 넉넉히 짜서 약간 건조시킨 후에 결이 굵은 붓으로 가로로 길게 터치 함으로써 뽁뽁하고 건조한 질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아쿠아 컬러크림 외에 다른 재료는 일체 사용하지 않았으며 흰색에서 배어나오는 깨끗함과 디자인의 단순함이 간결해 보이는 작품이다.



〈작품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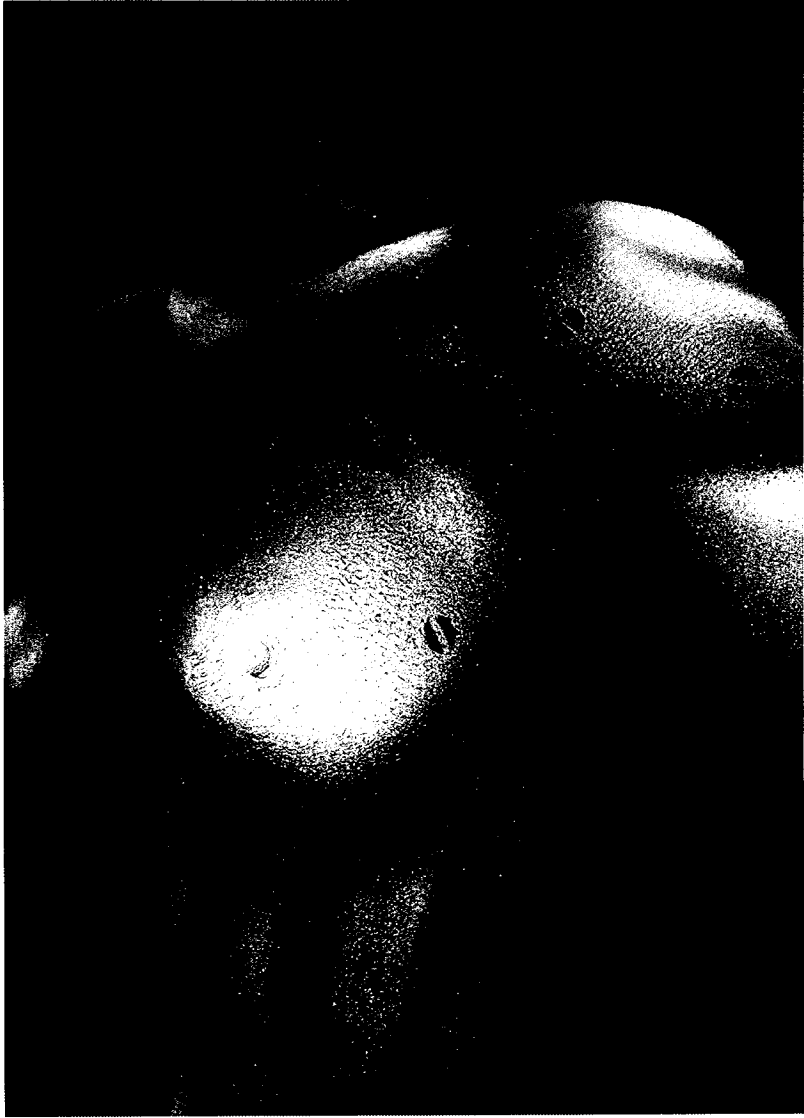
【 작품 6 】

표현기법 : 에어브러쉬 기법

질감표현 : 하드하고 광택 있는 질감표현

재 료 : 에어브러쉬 리퀴드 컬러, 글리터스

작품해설 : 에어브러쉬 기법을 활용한 작품으로써 실버, 화이트, 블랙 컬러의 무채색만을 사용하여 하드하면서 광택나는 질감표현을 하고자 하였다. 먼저 실버 에어브러쉬 리퀴드 컬러를 사용하여 선을 그린 후 블랙, 화이트 에어브러쉬 리퀴드 컬러로 볼륨을 살렸다. 나사의 표현을 하기위해 스텐실용 필름에 문양을 새겨 칼로 도려내서 사용하였다.



〈작품 6〉

【 작품 7 】

표현기법 : 오브제 활용 기법

질감표현 : 화려하고 글리터 하면서 갈라진 질감표현

재 료 : 금분, 금박, 파운데이션, 파우더, 아쿠아 컬러크림, 글리터스

작품해설 : 금분과 금박을 이용하여 화려하고 글리터 하면서 갈라진 질감을 표현하였다. 눈과 입술에는 골드 아쿠아 컬러크림을 바르고 다시 금박을 덧붙였으며, 눈두덩이에도 금분과 금박을 표현하였고 검정 인조 속눈썹에 금색을 덧입힌 속눈썹을 붙였다. 금분과 금박을 이용하여 바디에 의상을 입은듯해 보이도록 여체의 선을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금분을 가볍게 바른 뒤에 수분을 공급해 주고 금박은 일일이 손으로 부착시켰다.



〈작품 7〉

【 작품 8 】

표현기법 : 그래픽적 표현기법

질감표현 : 매트하고 딱딱하며 갈라진 질감표현

재 료 : 머드팩, 아쿠아 컬러크림

작품해설 : 모델의 신체에 머드팩을 바른 후 건조 되었을 때 겨울의 차가움과 딱딱함을 표현해 보았고 머드팩을 바른 후 그 위에 부분적으로 옐로우그린 아쿠아 컬러크림을 사용하여 생동감 넘치는 봄을 표현하였으며, 브론즈와 다크브라운 아쿠아 컬러크림을 사용하여 가을의 단풍과 앙상한 나뭇가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8〉

【 작품 9 】

표현기법 : UV발광물감을 이용한 표현기법과 에어브러쉬 기법

질감표현 : 화려하고 매트한 질감표현

재 료 : 에어브러쉬용 리퀴드 UV발광컬러, UV발광 아쿠아 컬러크림, 석고, 아쿠아 웨트 컬러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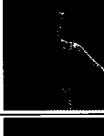
작품해설 : UV발광물감과 블랙라이트로 표현기법과 에어브러쉬 기법을 함께 사용한 작품으로 페인팅 제품은 컬러는 UV발광물감을 사용하였고 블랙은 아쿠아 웨트 컬러물감을 사용하였다. 블랙라이트는 40W를 사용하였는데 모델의 머리 부분과 앞쪽 좌, 우에 각각 한 개씩 세 개의 조명을 사용하였으며, 발광을 살리기 위해 블랙라이트 외의 조명은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

몸의 앞쪽은 UV발광 아쿠아 컬러크림을 사용하여 붓으로 그렸으며, 뒤쪽은 석고를 바르고 에어브러쉬용 리퀴드 UV발광컬러를 이용하여 매트하고 갈라지는 질감표현을 하였다.



〈작품 9〉

〈표 2〉 작품에 따른 표현기법과 질감

	표현 기법	질감	작품사진
작품 1	회화적 표현기법	까칠까칠한	
작품 2	회화적 표현기법	건조한, 차가운	
작품 3	에어브러쉬 표현기법 오브제 활용기법	매트한, 딱딱한, 소프트한	
작품 4	회화적 표현기법	시각적	
작품 5	그래픽적 표현기법	뽁뽁한, 건조한	
작품 6	에어브러쉬 표현기법	하드한, 광택있는	
작품 7	오브제 활용기법	화려한, 광택있는, 갈라진	
작품 8	그래픽적 표현기법	매트한, 딱딱한, 갈라진	
작품 9	UV발광물감을 이용한 표현 기법, 에어브러쉬 표현기법	화려한, 매트한, 거친	

IV. 결 론

본 연구는 질감을 신체에 적용해 봄으로써 시각표현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응용될 수 있는지 하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질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바디아트의 예술성을 높이고 앞으로 바디아트분야 작품 활동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방법은 바디아트와 질감에 관련된 문헌을 중심으로 바디아트와 질감에 관한 고찰을 하였고, 시각적인 질감과 촉각적인 질감을 회화적 표현기법, 그래픽적 표현기법, UV발광물감을 이용한 표현기법, 에어브러쉬를 이용한 표현기법, 오브제를 활용한 바디아트 표현 기법을 응용하여 아쿠아 컬러크림, 머드팩, 석고팩, 은박, 금박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질감을 위주의 작품을 총 9개를 제작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작품들은 바디아트에 표현된 시각적 질감은 화폭에서처럼 붓으로 그리는 회화적 기법이나 에어브러쉬를 이용하여 실제적으로 만져지지지는 않지만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실제의 건물이나 사물을 실물과 똑같은 모습을 묘사하여 표현하였고, 촉각적 질감은 머드팩, 석고팩, 컬러고무팩, 스톤, 금분, 오일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까칠까칠한, 매트한, 건조한, 딱딱한, 매끄러운, 글리터스한, 부드러운 등의 질감을 표현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작품제작에서는 실물과 같은 나무의 나이테를 묘사하여 시각적 질감을 표현하였고, 촉각적인 질감은 아쿠아 컬러크림, 머드팩, 석고팩, 은박, 금박, 글리터스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까칠까칠한, 미끈미끈한, 딱딱한, 건조한, 매트한, 갈라지는, 뽁뽁한, 두꺼운, 화려한, 글리터스한, 거친, 부

드러온 등의 질감의 특성들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바디아트의 표현양식에 있어서 질감이 적용되고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질감의 특성을 모티브로 삼은 바디아트는 묘사위주의 표현에 치중되는 것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하고 예술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자의 작품은 신체의 일부분 위주로 작품이 제작되어 다양하게 인체를 사용하지 못한 점과 전문 모델이나 전문 사진작가, 전문 스튜디오에서의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작품을 표현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다. 또한 테마가 아닌 바디아트 표현기법과 질감 위주로 이루어져 작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아쉬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제를 가지고 신체 전체나 얼굴 위주 등의 다양한 신체 부위에 대한 작품 활동의 좀 더 수준 높은 작품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바디아트에서의 질감표현이 외적표현의 부수적인 수단으로서의 의미에서 더 나아가 예술적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서 정착 발전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형식이나 개념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우며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지향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실험성이 강한 다양한 질감재료와 다양한 표현방식을 시도한 바디아트의 후속 연구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곽대웅, 김승희, 김혜원, 백태호, 이부웅, 임영주, 전용일, 유성웅(1990). 『디자인 공예 대사전』. 서울: 미술공론사.
- 김광숙, 조진아, 전연숙, 이현주(2001). 『The Make up』. 서울: 예림출판사.
- 두산동아 사서편집국(2005). 『동아 새국어사전』. 서울: (주)두산동아.
- 데이비드A.라우어, 스티븐 펜탁, 이대일 역(2002). 『조형의 원리』. 서울: 예경.
- 마틸린혼 루이스구렐 저, 이화연, 민동원, 손미영 역(1992). 『의복: 제2의 피부』. 서울: 까치.
- 빅토리아 에빈 저, 임숙자 역(1988). 『신체장식』. 서울: 경춘사.
- 스티브 길버트 저, 이순호 역(2004). 『금지된 패션의 역사 문신』. 서울: 도서출판르네상스.
- 이선재(1998). 『의상학의 이해』. 서울: 학문사.
- 조준영(1984). 『기초디자인』. 서울: 미진사.
- 조현설(2003). 『문신의 역사』. 서울: 살림.
- 클라우디아 베티, 킬 쎄일 저, 하영식 역(1987). 『현대 드로잉 기법』. 서울: 미진사.
- 한국미용학회편(2003). 『미용학사전』. 서울: 신평출판사.
- 현대인과 패션 편찬위원회(1998). 『현대인과 패션』.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학위논문

- 권은주(1988). 「이미지 전달요소로서 TEXTURE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순(2004). 「돌의 질감표현을 응용한 장신구 디자인 연구- 조형성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정은(2003). 「바디아트의 표현적 특성과 형태연구-지역 특성과 시대 변화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선(2002). 「조선시대 민화의 문자도를 응용한 바디페인팅 작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정주(2003). 「아트 메이크업에 나타난 오브제의 소재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은(2001). 「현대패션에 표현된 신체장식의 미적특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형(2003). 「에어브러시(AIR BRUSH)를 이용한 바디페인팅(BODY PAINTING)의 표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명숙(2005). 「바디아트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외국단행본

- Rustenholz, A. (2000). *Maquillage*. Turin : Éditions du Chêne.
- Bish, B. Hodgson, H. (1999). *Body art*. London : Kyle Cathie limited.
- Blauer, E. (2004). *African Elegance*. New York : Random House Inc.
- Groening, K. (2001). *Decorated Skin*. London : Thames & Hudson limited.

Lutens, S. (1998). *Serge Lutens*. New York : Ahssouline.

Watanabe, S. (2005). *タトゥー・ギャラリー*. 東京 : 富士美出版.

Encarta World English Dictionary [North American Edition] ©& (P)

2001 microsoft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for
Microsoft by Bloomsbury Publishing Pic.

잡지

보그 코리아 2003년 3월호.

인터넷 사이트

www.bodypainting-festival.com.

www.doumtattoo.com.

www.bodypainting-magazine.com.

www.imagesearch.naver.com.

www.jinamall.com.

www.joannegair.com.

www.kr.image.yahoo.com.

www.mini.planet.daum.net.

www.salon-korunka.cz.

www.tab.search.daum.net.

www.wagle.planet.daum.net.

ABSTRACT

A Study of Methodology to Express Touch in Materials Used in Body Art

Im, Jeong Mi

Major in Make-up Arts

Dept. of Fashion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

Hansung University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culture, body art is continuously developing in modern society. Since body art that has been introduced to fashion shows, dramas or any other performances has developed to works with a focus on color and shape, those works for the expression of touch are required.

The expression of touch in body art includes tactile touch that is constantly sensed and memorized through the skins throughout the body and visual touch that is memorized and saved in the cerebrum, and the origin of a new touch that is created by an artist is based on the touch of nature.

The touch of body art is very important. It has great influence on the image or characteristic of a work. In addition, the effect of touch varies depending on materials and tools used, which may give different feelings

and maximize the effects.

This study explored the availability that touch may be applied to visual expression and how it may be applied as it is applied to human body, creating works in a variety of expression methods in order to effectively communicate i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nclude enhancing the aesthetics of body art and providing useful data to work activities in body art field.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ossibility as to how touch in materials is applied to visual expression by applying it to body, to enhance the aesthetics of body art by making works in various ways in order to efficiently communicate touch in materials to others, and furthermore to provide useful data to work activities in the body art field. As a methodology, review was made on body art and touch in materials with a focus on literature related to body art and touch in materials. A total of nine works that centered on touch in materials were made by applying picturesque expression skill, graphic expression skill, and that using UV luminous colors, that using air brush, and body art skill using objet and by using materials such as aqua color cream, mudpack, plaster pack, silver foil and gold foil.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First, visual touch in body art is often expressed with the use of picturesque skill or it is often expressed by depicting buildings or things using air brush as if they were real, even though they cannot be touched in practice, but can be felt visually. Tactile touch is identified with the feeling of roughness, sleekness, hardness, dryness, split, stiffness, thickness, splendidness,

glitter, toughness and softness and expressed using materials such as mudpack, plaster pack, silver foil, gold foil, and glitters.

Second, body art works with application of visual touch and tactile touch present the possibility that touch in materials may be used and applied in the expression pattern of body art, by using various materials such as aqua color cream, mudpack, plaster pack, silver foil, gold foil, glitters, and wood shavings.

It is found that body art with a motif of touch in materials helps create unique image and enhance artfulness because it is not bound by depictive expression.